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장현정[†]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0년 6월 8일 접수: 2020년 6월 25일 수정: 2020년 6월 30일 채택)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Hyun-Jung Ja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Received June 8, 2020; Revised June 25, 2020; Accepted June 30, 2020)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G시의 간호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r=.70, p<.001$), 임상수행능력($r=.23, p<.001$), 전공만족도($r=.6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 이미지와 양의 상관관계가($r=.14, p=.015$) 전공만족도는 간호사 이미지($r=.55, p<.001$), 임상수행능력($r=.14, p=.012$)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beta=.32, p<.001$), 사회적 이미지($\beta=.31, p<.001$), 전문적 이미지($\beta=.21, p<.001$), 임상수행능력($\beta=.09, p=.018$)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59.9%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3 sophomores and juniors majoring in nursing in G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October 15 and 19,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 ($r=.70, p<.001$), clinical performance ($r=.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ngah74@hanmail.net)

$p < .001$), and major satisfaction ($r = .62, p < .001$), clinical performa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 ($r = .14, p = .015$), and majo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 ($r = .55, p < .001$) and clinical performance ($r = .14, p = .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cluded major satisfaction ($\beta = .32, p < .001$), social image ($\beta = .31, p < .001$), professional image ($\beta = .21, p < .001$), and clinical performance ($\beta = .09, p = .018$), in order, with 59.9% explanation power. To establish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ir image of nurs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Keywords :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고등학생이 꿈꾸는 희망직업 3위가 ‘간호사’였으며 2016년에 이어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1].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타 직업군과는 달리 취업률이 높고 경제적 측면의 안정성,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2], 간호교육 인 증제로 인해 높아진 간호교육의 질 변화,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3]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대응에 대해 의료진 중 간호사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은 현재 간호사 이미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 전공을 위해 입학했지만 전공만족도가 저하되면서 학업성취도도 낮아지게 되어 재학 중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4].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호전문직관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하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신념, 견해나 간호활동 과정,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이다[5][6]. 간호전문직관은 전인 간호의 실천 핵심이며 특히 학생에게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

문직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7]. 간호전문직관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며 임상실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므로[5][8] 대학 시절 전공과 관련성이 있다[9]는 것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중요하다[10].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전공에 대한 자긍심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며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이 있는 간호사 이미지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뿐 아니라 의사, 환자, 보호자 등이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을 의미한다[11]. 입학 시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입학하게 되지만 전공교육을 받거나 임상실습을 통하면서 본인이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와 현재의 간호사 이미지 사이에 모순이 생겨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본인의 간호사 신념과 가치를 손상시켜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즉,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13]이 되므로 대학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14] 긍정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15]. 긍정적 자아개념은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은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16].

임상수행능력이란 학습된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해 상황에 적절하고 능숙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17]. 한국간호평가원에서도 학생들의 졸업시점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교양 및 전공지식 외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을 제시하고 임상에서 필요한 수행능력 중 핵심기본 간호술을 지정하여[18]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은 효과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19]. 간호대학생은 전공지식과 함께 간호기술도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이 미흡하게 되면 자신감 저하로 인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저하되므로 임상수행능력과 전공만족도는 관련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아야 하며 이때 간호사의 전문직 직관 확립이 매우 중요시 된다[20].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활력징후와 관찰 등의 비침습적인 기본간호 위주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21] 직접적인 간호제공보다는 관찰위주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 간호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위해 관찰 위주의 문제점을 개선한 다양한 수업방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22].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소속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이며[23] 전공만족도가 클수록 간호전문직 가치관 및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6].

전공만족도는 학과의 적응능력 향상과 함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하므로 간호전문직관과 상호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24].

선행연구에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연구로는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10][20][25][26] 등이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연구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27],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11], 전공 만족,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9], 전공만족도[4], 간호사 이미지 [7][28],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2][3], 업무수행능력과 직무 만족[20] 등이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간호사 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였다.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특히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의 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 부분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및 전공만족도가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G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2, 3학년 대상자에게 총 327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에 자발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중 응답에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24부를 제외한 총 30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Kang 등[29]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총화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전문적 이미지(6문항), 전통적 이미지(6문항), 사회적 이미지(5문항), 간호직 전망(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ang 등[29]의 연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2. 임상수행능력

Lee 등[3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기초로 Choi [3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부터 '매우 잘한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31]의 연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7$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 [23]의 학과만족도 도구 중 Lee [32]가 전공 만족 관련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32]의 연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Yeun 등[6]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총 29개 문항 4개 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9문항), 사회적 인식(8문항), 간호의 전문성(5문항), 간호실무 역할(4문항), 간호의 독자성(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eun 등[6]의 연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Program을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가 248명(81.8%) '남'이 55명(18.2%)이었고, 나이는 평균 21.04세로 '20세 이하'가 128명(42.2%), '21세~24세'가 168명(55.4%), '25세 이상'이 7명(2.3%)이었다. 학년별 분포로는 '2학년' 149명(49.2%), '3학년'이 154명(50.8%)이었으며 실습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있음' 154명(50.8%), '없음'이 149명(49.2%)이었다. 희망하는 취업기관은 201명(66.3%)이 '3차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친척 유무에 대한 부분은 '있음' 140명(46.2%), '없음'이 163명(53.8%)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55(18.2)	
	female	248(81.8)	
Age	≤20	128(42.2)	21.04±1.47
	21-24	168(55.4)	
	25≥	7(2.3)	
Grade	2nd	149(49.2)	
	3rd	154(50.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54(50.8)	
	No	149(49.2)	
Employment Agency	Tertiary Hospital	201(66.3)	
	General Hospital	48(15.8)	
	Government Office(public servant)	30(9.9)	
	etc. (clinic, overseas, industry)	24(7.9)	
Having Relation Nurse	Yes	140(46.2)	
	No	163(53.8)	

Table 2. Degree of Image of Nurses, Clinical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0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in	Max
Image of Nurses Total	20	3.94±.52	2.00	5.00
Professional Image	6	4.23±.59	2.00	5.00
Traditional Image	6	3.88±.65	2.00	5.00
Vision of Nursing Career	3	3.61±.74	2.00	5.00
Social Image	5	3.85±.62	1.80	5.00
Clinical Performance	45	4.03±.51	3.00	5.00
Major Satisfaction	18	3.88±.57	1.72	5.00
Nursing Professionalism Total	29	3.81±.52	2.21	5.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9	3.93±.59	2.00	5.00
Social Awareness	8	3.76±.63	1.5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5	3.87±.60	2.00	5.0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4	3.98±.62	2.00	5.00
Originality of Nursing	3	3.32±1.09	1.00	5.00

3.2.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94±.52점이며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4.23±.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 전망'이 3.61±.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평점평균 5점 만점에 4.03±.51점이며 전공만족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88±.5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81±.52점이며 하위영역 중 '간호실무 역할'이 3.98±.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

이 3.32±1.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는 학년($t=2.55$, $p=.011$)과 실습경험 유무($t=-2.55$, $p=.011$)에서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이 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Table 3. Difference level of Nursing Image, Clinical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y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	Categories	Image of Nurses Total			Professional Image			Traditional Image			Vision of Nursing Career			Social Image			Clinical Performance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Mean±SD	t/F(p)scheffé		
Gender	male	3.84±.56	-1.60 (.111)	3.98±.65	-3.53 (<.001)	3.89±.71	.17 (.867)	3.58±.75	-.32 (.746)	3.75±.65	-1.39 (.167)	4.06±.55	.56 (.578)						
	female	3.96±.51		4.29±.56		3.88±.64		3.61±.74		3.87±.61		4.02±.51							
Age	≤20 ^a	3.99±.51		4.27±.57		3.96±.63		3.63±.73		3.92±.60	4.92 (.008)	4.08±.50	1.34 (.262)						
	21-24 ^b	3.91±.53	2.53 (.081)	4.21±.60	.40 (.674)	3.84±.66	3.11 (.046)	3.59±.75	.23 (.792)	3.83±.62	a,b>c	3.99±.52							
	25≥ ^c	3.59±.45		4.14±.85		3.40±.50		3.48±.77		3.20±.65		3.92±.48							
Grade	2nd	4.01±.53	2.55 (.011)	4.26±.60	.84 (.399)	4.00±.67	3.29 (.001)	3.72±.71	1.46 (.005)	3.90±.63	1.89 (.145)	4.08±.52	1.86 (.059)						
	3rd	3.86±.50		4.21±.58		3.76±.61		3.49±.76		3.80±.60		3.97±.5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6±.50	-2.55 (.011)	4.21±.58	-.84 (.399)	3.76±.61	-3.29 (.001)	3.49±.76	-1.46 (.005)	3.80±.60	-1.89 (.145)	3.97±.50	-1.86 (.059)						
	No	4.01±.53		4.26±.60		4.00±.67		3.72±.71		3.90±.63		4.08±.52							
Employment Agency	Tertiary Hospital	3.96±.52		4.24±.59		3.91±.63		3.65±.73		3.90±.59		4.04±.49							
	General Hospital	3.88±.52		4.19±.58		3.81±.68		3.60±.73		3.76±.65		4.02±.58							
	Government Office (Public servant) etc.(clinic, overseas, industry)	3.85±.51	.64 (.589)	4.22±.63	.15 (.927)	3.86±.71	.33 (.803)	3.29±.80	2.10 (.100)	3.73±.68	1.20 (.310)	4.01±.56	.56 (.640)						
Having Relation Nurse	Yes	3.94±.55	.03 (.973)	4.23±.58	-.18 (.862)	3.87±.66	-.35 (.729)	3.64±.75	.67 (.504)	3.86±.63	.27 (.784)	4.08±.53	1.76 (.079)						
	No	3.94±.50		4.24±.60		3.89±.64		3.58±.73		3.84±.61		3.98±.49							

Table 3. Continue (N=303)

Variable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Total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ocial Awareness		Professionalism of Nursing		The role of Nursing Service		Originality of Nursing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Gender	male	3.75±.56	-2.00 (.047)	3.64±.50	-2.81 (0.005)	3.78±.57	-1.98 (0.049)	3.59±.62	-2.15 (0.032)	3.67±.53	-2.89 (0.004)	3.74±.70	-3.21 (0.001)	3.13±1.06	-1.39 (0.165)
	female	3.91±.56		3.85±.52		3.96±.59		3.79±.63		3.92±.60		4.03±.59		3.36±1.09	
Age	≤20 ^a	3.96±.54		3.93±.50	9.16 (<.001)	4.05±.55	10.37 (<.001)	3.86±.62	4.68 (<.001)	3.99±.58	6.13 (<.001)	4.11±.53	7.74 (<.001)	3.44±1.18	1.40 (0.249)
	21-24 ^b	3.84±.58	3.11 (.046)	3.75±.53		3.86±.60		3.70±.64		3.81±.59		3.91±.66		3.24±1.03	
	25≥ ^c	3.55±.36		3.25±.23	a>b>c	3.17±.27	a>b>c	3.27±.30	a>c	3.37±.36	a>b,c	3.36±.24	a>b,c	3.10±.46	
Grade	2nd	3.94±.55	1.86 (.064)	3.92±.52	3.38 (0.001)	4.03±.57	3.18 (0.002)	3.88±.63	3.21 (0.001)	3.96±.59	2.61 (0.009)	4.08±.59	2.93 (0.004)	3.38±1.19	.91 (0.367)
	3rd	3.82±.58		3.72±.51		3.82±.59		3.65±.61		3.79±.59		3.88±.63		3.26±.9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2±.58	-1.86 (.064)	3.72±.51	-3.38 (0.001)	3.82±.59	-3.18 (0.002)	3.65±.61	-3.21 (0.001)	3.79±.59	-2.61 (0.009)	3.88±.63	-2.93 (0.004)	3.26±.98	-0.91 (0.367)
	No	3.94±.55		3.92±.52		4.03±.57		3.88±.63		3.96±.59		4.08±.59		3.38±1.19	
Employment Agency	Tertiary Hospital ^a	3.94±.56		3.85±.52		3.96±.57		3.78±.63		3.90±.60		4.03±.61		3.41±1.10	
	General Hospital ^b	3.72±.48	3.17 (.025)	3.76±.57		3.84±.66		3.75±.67		3.82±.61		3.91±.61		3.28±1.05	
	Government Office ^c	3.70±.65	a>b	3.69±.49	1.25 (0.292)	3.85±.64	.88 (0.450)	3.65±.64	.43 (0.729)	3.82±.62	.31 (0.819)	3.88±.69	1.67 (0.173)	2.88±1.12	2.36 (0.072)
	etc.(clinic, overseas, industry) ^d	3.97±.56		3.74±.45		3.87±.53		3.72±.56		3.85±.49		3.79±.62		3.15±.96	
Having Relation Nurse	Yes	3.92±.54	1.09 (.278)	3.84±.50	.63 (0.528)	3.94±.59	.42 (0.676)	3.82±.61	1.69 (0.093)	3.88±.60	.12 (0.902)	4.02±.60	.96 (0.339)	3.24±1.12	-1.18 (0.238)
	No	3.85±.58		3.80±.54		3.91±.59		3.70±.65		3.87±.60		3.95±.64		3.39±1.06	

1 94 1

긍정적이었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 중 전통적 이미지와 간호직 전망에서 학년 및 실습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나이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전공만족도는 성별($t=-2.00, p=.047$), 나이($F=3.11, p=.046$), 희망취업기관($F=3.17,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에서는 20세 이하에서 가장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희망 취업기관은 3차 상급 종합병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2차 종합병원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성별($t=-2.81, p=.005$), 나이($F=9.16, p<.001$), 학년($t=3.38, p=.001$), 실습경험 유무($t=-3.3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나이에서는 21세~24세가 25세 이상보다는 높았고 20세 이하보다는 낮게났으며 학년은 3학년보다 2학년이,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r=.70, p<.001$), 임상수행능력($r=.23, p<.001$), 전공만족도($r=.6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 이미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4, p=.015$) 전공만족도는 간호사 이미지($r=.55, p<.001$), 임상수행능력($r=.14, p=.012$)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간호전문직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로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를 요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170으로 나와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tolerance(공차한계)는 .358~.933이었으며 공선성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값은 1.072~2.796으로 나타나 이 모든 값은 0.1 이하이거나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1.1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9.9%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beta=.32, p<.001$), 간호사 이미지 중 사회적 이미지($\beta=.31, p<.001$)와 전문적 이미지($\beta=.21, p<.001$), 임상수행능력($\beta=.09, p=.01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와 동일한 연구 도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교에 제한점이 있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평점 3.94점이며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 전망이 3.61점으로

Table 4. Correlation among Image of Nurses, Clinical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03)

	Image of Nurses	Clinical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r(p)$			
Image of Nurses	1			
Clinical Performance	.14(.015)	1		
Major Satisfaction	.55(<.001)	.14(.012)	1	
Nursing Professionalism	.70(<.001)	.23(<.001)	.62(<.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303)

Variables	B	SE	β	t	p
Gender	-.06	.06	-.04	-.99	.323
Age	-.06	.05	-.06	-1.07	.284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07	.05	-.07	-1.34	.181
Professional Image	.18	.05	.21	4.02	<.001
Traditional Image	.08	.05	.10	1.74	.083
Vision of Nursing Career	-.03	.04	-.05	-.89	.374
Social Image	.26	.05	.31	5.10	<.001
Clinical Performance	.09	.04	.09	2.38	.018
Major Satisfaction	.30	.04	.32	7.08	<.001
Adjusted R ² =.599		F(p)=51.15(<.001)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Lim과 Jo [11], Yun 등[28]의 연구에서의 간호사 이미지 측정 도구는 본 연구 도구와 상이하여 비교 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Lim 등[3]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가 가장 높고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남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학생의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중 ‘백의의 천사’, ‘희생과 봉사’, ‘복종’ 등의 이미지[33]가 감성적 성향의 여학생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전문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추후 동일 도구 및 대상을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타난 ‘간호직 전망’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평점 4.03점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가 상이하기는 하나 Park 등[27]의 연구에서의 3.0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Park 등[27]의 연구에서 대상이 3, 4학년임을 고려할 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술기 이행에 대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 3학년 간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의 경우 이론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현재 2학년의 경우 학기 동안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의 반복적 이행으로 인해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지각된 결과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 및 연구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동일 연구 도구 및 대상자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의 평균평점은 3.88점으로 나타나 Jo 등[2]의 결과 3.96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Mun과 Hwang [16]의 연구결과인 3.77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Mun과 Hwang [16]은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Jo 등[2]은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공을 접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공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학년별에 따른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전공만족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평점은 3.81점이며 하위영역 중 간호실무 역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이 3.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Seong 등[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Mun과 Hwang [16]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간호실무 역할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실무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임을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면서도 Ju와 Shin [34]의 결과에서처럼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상 의사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간호의 독자성 부분에 대해 낮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 간호사들의 독립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간호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이미지는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이 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Yun 등[28]의 연구에서 주관적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대중매체 간호사 이미지는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Park과 Yang [35]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2, 3학년과 차이가 있게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중 저학년에서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Kang과 Kim [12]의 연구는 임상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실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입학시부터 임상실습 전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형성된 간호사의 이미지와 실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관찰하는 간호사의 실제 이미지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순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36]으로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저학년 때부터 추후 임상실습 시 관찰하게 되는 현실적인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내실습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실습 후 갖게 되는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예방하고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향상이 필요하며[36] 이를 통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다면 실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직무만족이 증가하여[37], 신규 이직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성별과 연령 및 희망취업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Mun과 Hwang [16]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Mun과

Hwang [16]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Jo 등[2]과 Hong[3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여 향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연령에서는 20세 이하에서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Mun과 Hwang [16]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취업기관에 대해서는 3차 상급 종합병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2차 종합병원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함에 있어 전공만족도의 향상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 중 희망취업기관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일반적 특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모두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가 미흡하며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Kim [38]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들을 비교하였으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역량이 증가되어 결과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전체 학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임상수행능력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 적용을 통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전문직관은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성별, 나이, 학년, 실습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나이에서는 20세 이하가 가장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으며 3학년보다 2학년이,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인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간호전문직관 등이 낮을 수 있다는 Hwang과 Shin [25]의 견해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2학년의 경우 전공교과목을 시작하게 되므로써 간호에 대한 전문성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3, 4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많은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고 정체성 확립이나 그들이 가지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화[39]되어 그들이 가

지는 간호 전문직관이나 간호사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과는 달리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저학년 때부터 간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2][36]의 결과와 일치하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4][10][16][26]와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7][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외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나타낸 Park 등[27]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가지는 전반적인 견해이므로 간호에 대한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 중 하나인 학업 성적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22]와 학업성취도 향상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점[38]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Han [26]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선행연구[3][28]에서도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적 정체성 확립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며[7] 특히 예비간호사로서 필요한 변화된 임상현장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세계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임을 볼 때 자신이 가지는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과 직결되며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나 전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본인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견해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라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자부심은 있으나

그에 맞는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정적이며 소극적, 수동적 이미지로 비춰지는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한다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간호사들의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며 이는 간호대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업무 환경개선 및 간호사 처우개선 등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Kim [38]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며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4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나타난 점[41]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Han 등[20]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업무수행능력이라는 결과가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임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간호술 습득을 위해 무엇보다 학과 또는 임상에서 이뤄지는 핵심기본간호술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론 및 실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먼저 간호학생으로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는 학년,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성별, 나이와 희망취업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나이, 학년,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임상수행능력은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는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임상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일부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cited 2020 Jun 07], Available From: <http://www.nurses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5043>
2. H. E. Jo, Y. H. Ahn, S. M. Ryu, J. Y. Lim, H. G. Kim,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6, No.3, pp. 1008-1017, (2019). <http://dx.doi.org/10.12925/jkocs.2019.36.3.1008>
3. K. M. Lim, H. Y. Kim,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 423-431,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23>
4.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N. R. Jang, D. E. Jang,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Nursing Research of Ewha Womans University*, Vol.45, pp. 29-44, (2011).
5. M. J. Schank,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in Professional Development*, Vol.17, No.5, pp. 226-231, (2001).
6.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 1091-1100, (2005).
7.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 798-809, (201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8. S. H. Ko, B. Y. Chu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3 pp. 335-344, (2004).
9.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3, pp. 285-292, (2007).
10. T. S. Ahn, Y. A. Song,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East-West Nursing Reserch Institute*, Vol.21, No.1, pp. 10-17, (2015).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1.10>
11.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 556-566, (2016).

-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56>
12. H. S. Kang, W. O. Kim,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9, No.3, pp. 379-387, (2002).
 13.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 219-231, (2004).
 14.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1, pp. 49-56, (2012). <https://doi.org/10.7739/jkafn.2012.19.1.046>
 15. S. H.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0, No.1, pp. 10-20, (2008).
 16.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8, pp. 403-418, (2016).
 17. C. Barre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pp. 364-371, (1998).
 18.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Manual of Nursing Education 2017, Retrieved April, 1, (2019).
 19. J. Yoon, K. J. Kim, M. S. Choi, "The Effects 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9, No.2, pp. 273-284, (2013).
 20.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 73-79, (2008).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21.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2, pp. 143-154, (2007).
 22. H. H. Hong, J. H. Kong, H. S. Kang, H. S. Jeong, S. K. Yang, "The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2, No.2, pp. 98-106, (2014). <https://dx.doi.org/10.15205/kschs.2014.2.2.98>
 23.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24.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 587-595,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25. E. H. Hw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No.1, pp. 97-108, (2017).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26. S. H. Han,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 353-363, (2018).
 27. B. J. Park, S. J. Park, H. 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 220-227,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220>
28. Y. S. Yun, S. Y. Lee, N. Y. Kim, U. M. Kim, M. S. Kim, H. J. Park, J. E. Lee, “The Impact of Nurses’ Identifica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 towards Nursing Professionalism”,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0, No.3, pp. 106-120, (2017).
 29. H. Y. Kang, M. H. Ko, J. J. Yang, S. 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 792-801, (2003).
 30.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S. M. L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Yonsei Nursing*, Vol.13, pp. 17-29, (1990).
 31.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32.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33. I. 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Vol.32, No.2, pp. 51-62, (1993).
 34. M. K. Ju, G.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31, pp. 510-521, (2012).
 35. M. H. Park, J. J. Yang, “A Study on the Nurse’ Image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8, No.1, pp. 107-121, (2002).
 36. E. Y. Hong,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0, pp. 85-93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085>
 37. S. J. Kim, “Relationship of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for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9).
 38. H. W. Kim,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9).
 39. A. Stott, “Issues in the Socialis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24, No.2, pp. 91-97, (2004). <https://doi.org/10.1016/j.nedt.2003.09.005>
 40.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41. H. J. Ju,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 213-224,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8.213>